

현장과 시각

정부정책, 신뢰부터...



정후식 사회1부 부장

수도권 규제 완화와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우선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의 추진 과정을 비교해보자.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한 뒤 이듬해 4월 특별법에 그 근거부터 마련했다.

5+2 광역경제권은 이와는 꽤 대조적이다. 지난 7월 21일 균형위 1차 보고회에서 기본 구상을 내놓은 직후 전국 순회 보고회를 갖긴 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사업은 대부분 누락되고 기존 사업만 끼워넣기식으로 반영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 위기를 불모 삼아 '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버렸다.

민심을 거스르는 잇단 정책들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who@kwangju.co.kr

한국인 5명 승선 日 국적 화물선 소말리아 해상서 또 피랍

해적 추정 무장단체에...외교부 대책본부 설치

한국인 5명이 타고 있는 일본 국적 화물선이 15일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을 비롯한 관련국과 협조하면서 우리 선원들이 조기에 석방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수백 채의 주택이 불타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곳곳 큰 산불...LA 비상사태

주택 수백여 채 불 타고 주민 2만여명 대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서 15일(현지시각) 대형 산불이 발생, 수백 채의 주택이 불타고 주민 2만여명이 대피하는 등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1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고 약 2천에이커가 불탔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주민 1만여명이 산불을 피해 긴급히 집을 나왔다.

"공화당 인사 포함 내각 곧 발표"

오바마, 자동차 산업·주택 보유자 지원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조만간 차기 내각 인선을 발표할 것이며 공화당 인사도 내각에 기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하는데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만약 내가 취임할 때까지 분명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취임 후 이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은행 110곳 공적자금 1,700억달러 요청

미국 은행 최소 110곳이 미 재무부에 1천7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투입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은행들의 잇따른 자본 투입 요청은 앞서 미 재무부가 7천억달러 규모 구제금융 중 2천500억달러를 따로 떼어 은행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일성 비핵화 지지' 외교문서 첫 공개

64년 주은래에 보낸 서신

196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직접 언급한 공식 외교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 주석은 지난 1964년 10월 30일 공개된 서신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핵무기를 철저히 폐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면서 "조선 인민은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실현하고자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과 일치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010-3666-8446.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Travel advertisement for Hanrahan (한라산 등반) tour. Features '1박2일 79,000원' and '2박3일 99,000원' packages. Includes details about the itinerary, departure times, and contact info for 제주월드고속웨리.